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영화 '색, 계'는 개봉당시 수위높은 노출로 세간의 관심을 불러모았지만, 정사신 하나만으로 화자되며 너무나도 아까운 결작이다. 대만의 거장 이안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유판과 사랑의 경계, 집단에 속해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의 양면성과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중국 역사 일각까지 한꺼번에 다루고자 한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홍콩으로 피난을 온 왕치아즈(탕웨이)는 대학 연극부가 되는데, 이때 연기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연극부 리더에 의해 친일파 혼심인 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세워진 항일단체 조직원이 된 왕치아즈는 정보부 대장이 (양조위)를 유혹해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에게 접근한다. 하지만 쉽사리 사랑에 빠지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는

용히 흐르며 극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작곡가 브람스 역시 스승의 아내였던 클라리를 평생 사모하여 자신의 마음을 감춘 체,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위태로운 경계선 위에서 살아온 작곡가가 아니었을까? 브람스의 인터메조는 인생의 최후기에 작곡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 브람스의 피아노 곡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다. 브람스는 말년에 대작의 작곡을 피하고 주로 소품들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짧은 멜로디 안에도 인간의 삶과 사랑에 대한 수없는 감정들을 가득 담아놓았다. 특히 말년 피아노 곡들은 구체적인 멜로디를 통해 기분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미묘한 감정과 그 깊이를 고스란히 청자들에게 전달해준다.

소개하고 싶은 연주는 바로 우리나라

'색, 계' 中 브람스 '인터메조 op.118 제2번'

삶과 사랑, 그 위태로운 경계선

이. 그러나 만남과 재회를 통해 둘은 서로에 대한 경계를 풀고 사랑에 빠지고 만다. 결국 왕치아즈는 조직의 암살 시도를 이해하게 되고 극은 걸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는다. 사실 즐거리는 간단하지만 영화에서 담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요약하기 곤란할 정도로 크고 깊다.

서로에게 자신의 본심을 들키지 않아야하는 이와 왕치아즈의 베일에 싸인 눈빛. 서로에게 자신을 감춰 진짜같은 연기를 해야하는 이들은 타인의 삶을 살아가며 그것에 동화되어가는 배우의 삶과 고스란히 닮아있다.

알렉산드르 데스플리의 오리지널 스코어는 자신을 감춰야 하지만, 또 감출 수 없는 오묘한 경계선에 놓인 삶을 연주한다. 그리고 이 작품에 삽입된 브람스의 '인터메조 제2번' 또한 위태로운 경계 사이에 선 두 사람 사이의 여백에 조

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연주다. 백건우는 최근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 브람스 말년의 피아노 소품들을 모아 발매했는데, 연주를 들어보면 그가 유럽에서 받고 있는 명망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庸의 타건, 견반을 어루만지는 듯 하다가도 감정이 함부로 흐르지 않도록 음표 사이를 꽉 잡아가는 손놀림. 백건우의 브람스는 묵직하면서도 따스하다.

가슴에 사무치게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지만 외칠 수 없는 순간의 슬픔,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싶지만 눈을 감아야 하고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삶의 비정함. 이 위태로운 간극을 메우던 브람스의 '인터메조 제2번'은 가려움을 쟁여가야만 하는 우리 삶의 또 다른 이면을 노래한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기본에 충실하라 그리고 진정성을 담아라"

광주일보 선배 문인들에게 듣는 '신춘문예 투고 요령'

신춘문예는 한겨울에 있는 '열병'과 같다. 이 열병은 꿈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며, 거울이 지나도 쉽게 낫지 않는 불치병이다. 또 심대 소녀와 칠순의 늦깎이 문학도가 함께 앓는 지병이다. 전국의 수많은 예비문인들은 초겨울이 되면 밤을 새워야며 써내려간 원고를 들여다보며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렇다면, 신춘문예에 당선의 영광을 누리 선배 문인들은 어떻게 준비했을까?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배 작가들의 조언을 들어봤다.

선배 작가들은 '기본에 충실하라'고 입을 모았다. 심사위원들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신춘문예용 작품은 없고, 문학 분야의 기본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인으로서 참신한 발상과 문제를 요구했다.

시인 이성부(1960년 시 당선)씨는 "언어와 어휘 구사에 충실했던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기분에 충실히하면 실수도 줄어든다. 사회를 담는 그런 작품이 당선된다"고 조언했다.

등단의 문이 위낙 좁았던 1960년대에는 '신춘문예 응시'라는 게 유행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즘 시가 개인적이고, 난해하고 극 단적인 어려움 속으로 자꾸 치닫고 있는데, 그런 쪽에 익숙이지 말고 자기가 진실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꾸준히 탐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인 김준태(1969년 시)씨는 시를 다루는 진지한 태도를 강조했다. 김 시인은 "나의 고민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겨냥해야 한다"면서 "모국어를 가지고 닦는 것은 작가의 사명이며, 문학의식을 갖고 모든 사물을 직시해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신춘문예는 곧 새로운 방식의 작품'이라는 공식도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꼭 신춘문예라고 해서 산뜻할 필요는 없고, '누구나 보고 느끼는 것'을 주제와 소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 선배 문인들은 원고 마감이 다가올수록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성부



김옥애



이미란



김준태

제가 새롭거나 실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각과 서사 방식의 새로운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낙선에 대한 두려움도 버리라고 조언했다.

김옥애(1975년 동화)씨는 "동화는 어른의 감정에 도취되면 안 되고, 아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면서 "낙선작도 나중에 훌륭한 작품으로 탈고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글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80매 안팎·상금 300만원), 시(3~5편·100만원), 동화(30매 안팎·100만원) 부문을 공모하고 마감은 오는 15일(소인 유휴)이다. 문의 062-220-0645.

/오피셜기자 kroh@kwangju.co.kr



베토벤으로의 마지막 클래식 여행

박다연·구재향 듀오 리사이틀, 내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구재향씨와 바이올리ニ스트 박다연씨는 지난 2004년 결성된 피아노 4중주단 '뮤지크 바움'을 통해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다. 두 사람이 다양한 작곡가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꿈꾸며 'The Dream'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한 게 지난 2008년이었고 첫번째 작곡가는 모차르트였다.

두번 째 시리즈로 시작했던 베토벤 바이올

린 소나타 전곡연주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두차례 연주회를 진행했던 두 사람은 오는 13일(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연주를 끝으로 베토벤으로의 여행을 마무리한다.

이번 연주회의 레퍼토리는 '소나타 9번 A 장조 작품 47' 일명 '크로이쳐 소나타'다. 또 베토벤의 마지막 소나타인 '소나타 10번 G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을 타고 흐르는 명품 선율 윤소희 첼로 독주회, 오늘 금호아트홀

윤소희 첼로 독주회가 1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윤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첼리스트와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흐의 '첼로 모음곡 3번 C장조', 쇼스타코비치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

장조'와 두 곡의 로망스도 함께 연주한다.

서울대를 거쳐 신시내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구씨는 현재 호남신학대 음악 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양대·독일 드레스덴국립음대 출신인 박씨는 광주시립교향악단원으로 활동중이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원. 문의 062-650-15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산구청, 중·고생 위한 '내고장 문화유산...' 운영

광주 광산구청은 지역 중·고등학생을 위한 '내 고장 문화유산'의 숨결을 찾아서'를 운영한다. '교육문화공동체 결'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12일부터 23일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이야기 있는 인문학 캠프 ▲지역문화 바로알기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참가하면 된다.

'이야기 있는 인문학 캠프'는 광산구의 의로운 인물과 역사적 사건 그리고 예술사를 중심으로 인문적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어등산 한말 의병 전적자, 윤상원 열사 생가 등을 탐방하고, 월봉서원에서 인문학 강좌를 듣는다.

'지역문화 바로알기'는 광산구의 문화재를 직접 찾아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문의 062-960-8539.

/충북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2011년도 야간반 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생모집

신규자반

① 교육일정

- 2011년 12월 12일(월)~2월 17일(금)

* 매주 월, 화, 목, 금 18:00~22:50 / 총 160시간<실습 80시간 별도>

② 모집인원 : 각 40명★ 교육비 등록순으로 선착순 마감★

③ 교육비 : 400,000원

④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소정양식)

- 주민등록증본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진 2매

자격증반

① 모집인원 : 40명★ 교육비 등록순으로 선착순 마감★

② 교육비 : 150,000원

③ 교육일정

- 사회복지사 : 42시간<실습 8시간 별도>

- 간호사 : 32시간<실습 8시간 별도>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42시간<실습 8시간 별도>

④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소정양식)

- 주민등록증본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진 2매

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 : 성실과 사랑으로 노인을 섬기고자 하는 모두 (면접후 학습능력 가능한 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번지

문의전화 062) 605-1112, 1063 / F. 062) 572-0264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2012년도 제20기
보건교사교육원 학생모집

①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2년 2월 20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30~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②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③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2년 1월 16일(월) 오전 10시

④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1년 12월 1일(목) ~ 2012년 1월 13일(금)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2년 1월 13일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⑤ 문의할 곳 교학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 krimsen@hanmail.net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번지 광신대학교 교학처

광신대학교 보건교사교육원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 광주광역시 지정 교육기관 : 광주-2008-제001호 ▶

2011년도 야간반
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생모집

신규자반

① 교육일정

- 2011년 12월 12일(월)~2월 17일(금)

* 매주 월, 화, 목, 금 18:00~22:50 / 총 160시간<실습 80시간 별도>

② 모집인원 : 각 40명★ 교육비 등록순으로 선착순 마감★

③ 교육비 : 400,000원

④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소정양식)

- 주민등록증본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p